염불·주술 융합 티벳중심 발전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㉑

라마불교 ①

라마불교는 대승불교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급제도적, 제정일치적으로 특이하게 변형되어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인도 북부와 갠지스 강변에서 가르침을 펼쳤지만, 라마불교는 티벳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14세기에 황금기를 맞았다.

라마불교를 연구한 라이스 데이비드 등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은 이 종교체제와 가톨릭 교회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전생활불(轉生活佛)이라고 일컬어지는 달라이라마는 17세기 이후 티벳의 원수(元首)가 되어왔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집권한 후 티벳을 점령했다. 점령시 종교적 전통을 존중해 주겠다고 약정한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 후 티벳 고유의 문화적 체제와 관습들이 모두 뿌리 뽑혀졌다.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자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라가서 인도의 서북부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정권을 수립했다.

소승불교에는 수도승만 있지 사제계급은 없다. 반면 라마불교에는 뚜렷한 사제계급이 있어서, 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위대한 왕)와 판첸라마(위대한 스승)는 중세 때의 가톨릭 교황들처럼 정신적인 권력과 함께 세속적인 권력도 행사한다. 주술(呪術)을 중시하는 고유신앙을 가진 티벳과 몽골인들은 사성제 같은 지고한 진리나 팔정도같은 엄격한 실천법에 쉽게 적응되기 어려웠다. 그들을 교화시키는 데에는 화려하고 복잡한 제례의식이나 번화한 염불의식 혹은 몸속 깊이 체득되어 있는 전통적 주술행위와 토착신앙을 융합한 종교형식이 필요했다. 버나드쇼는 "몽고의 토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일은 사실상 기독교를 몽고의 토인이 믿는 민간신앙으로 바꾸는 일이 되고 만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티벳인들은 외래종교를 고유의 정신체계와 융합시켜 독특한 혼합종교를 만들어 내었다. 거기에는 대승불교에 내재해 있던 다신(多神)적 체계와 주술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라마불교는 티벳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뚜렷한 사제계급을 갖고 다양한 신성(神性)을 인정한다. 윤리·도덕을 특히 강조하며 '옴마니반메훔'을 주력, 악귀를 쫓아낸다고 믿기도 한다. 사진은 전세계 사원중 가장 높은 곳(해발 5천미터)에 위치한 풍루사원.

사제계급 뚜렷…환생 인정 다신론적 사고 팽배

불교의 윤리·도덕적인 면 강조
선·악행은 사후라도 보상과 처벌
라마는 정신·세속적 권력 가져

공산주의가 티벳을 점령하고 억불정책을 쓰기 전까지는 불교사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아들 중의 한명을 가까운 사원으로 보냈다. 팔구세 가량의 이들 소년들 중에서 소수만이 초심자로 받아들여지고 오랜 공부와 시험뒤에 정식 승려가 된다. 대개 수도원장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있는 인물이 된다.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면, 사원 부근의 가난한 집에서 환생한다고 믿었다. 그 아이는 신탁에 의해 발견되고 법도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가난한 집에서 환생한다는 사실은 무슨 민주적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세있는 집안으로 하여금 권좌의 계승문제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티벳은 원래 관음보살의 교화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서, 달라이라마는 세대를 거쳐 전생(轉生)하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옴마니반메훔(오! 연꽃잎의 이슬이여)은 특히 달라이라마가 입적할 때 마치 연꽃잎에 맺힌 이슬이 바다로 흡수되는 것처럼 열반에 입적하는 것을 기리는 주문이다.

티벳에서는 다양한 신성(神性)이 경배된다. 여러 부처님들과 그 제자들, 보살들, 대승불교의 창시자 용수(나가르주나) 등과 함께 험악한 얼굴의 사천왕, 지옥의 왕이며 사자(死者)의 심판관인 염라대왕(그의 상징은 해골과 남근(男根)이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여러 신들이 모두 경배의 대상이다.

티벳불교는 불교의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다. 선행은 사후 필히 보상을 받으며, 악행은 꼭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통불교가 자아라는 개념을 배제한 업(業)의 논리에 의지하는데 비해, 라마불교는 세대에서 세대로 윤회전생하는 개인적 자아의 영혼을 인정하는 편이다. 죽은 자는 이땅이나 아니면 육도(六道)의 어디에선가 환생한다는 것이다.

마귀들은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적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신중한 태도다. 이런 믿음하에 부적은 승려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승려들이 독경을 통한 정신치료법을 실시하였다. 악귀를 쫓고, 병을 치료하며, 극락정토로 인도한다고 믿는 주문을 수시로 암송하는 일이 민간에서 널리 유형하였다. 가장 효험이 있다고 믿은 주문은 역시 옴마니반메훔이었다.

만트라(mantra)는 산스크리트어로 '문자' '언어'의 뜻이다. 한자로는 '진언(眞言)'이라고 음역하며, 밀교에서는 '다라니(陀羅尼, dharani)'라고도 부른다. 만트라는 단순한 언어의 뜻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되지 않고 원어발음 그대로 따라한다. 유대 신비주의 일파인 카발라에서도 성경의 글자에는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해로운 말, 불길한 말, 싸움을 불러오는 말, 불같이 뜨거운 말, 행운을 불러오는 말, 친절한 말 등 힘을 내재하고 있는 말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잘 배합하면 효능은 더 증대된다. 각각의 마귀마다 치명적인 말이 있고 승려들은 그 주문들을 알고 있다.

만트라는 음송되지만, 글이나 문양으로 쓰여져서 관상(觀想)되기도 한다. 숙소나 사원의 지붕을 장식하는 깃발에 그려지기도 하고, 옷이나 부적에 쓰여지기도 한다. 환자는 식이요법 중 만트라가 쓰인 종이를 먹기도 한다.

만트라를 독창(讀唱)하거나 관상하면 하도록 막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티벳은 원래 관음보살의 교화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서, 달라이라마는 세대를 거쳐 전생(轉生)하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옴마니반메훔(오! 연꽃잎의 이슬이여)은 특히 달라이라마가 입적할 때 마치 연꽃잎에 맺힌 이슬이 바다로 흡수되는 것처럼 열반에 입적하는 것을 기리는 주문이다.

티벳에서는 다양한 신성(神性)이 경배된다. 여러 부처님들과 그 제자들, 보살들, 대승불교의 창시자 용수(나가르주나) 등과 함께 험악한 얼굴의 사천왕, 지옥의 왕이며 사자(死者)의 심판관인 염라대왕(그의 상징은 해골과 남근(男根)이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여러 신들이 모두 경배의 대상이다.

티벳불교는 불교의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다. 선행은 사후 필히 보상을 받으며, 악행은 꼭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통불교가 자아라는 개념을 배제한 업(業)의 논리에 의지하는데 비해, 라마불교는 세대에서 세대로 윤회전생하는 개인적 자아의 영혼을 인정하는 편이다. 죽은 자는 이땅이나 아니면 육도(六道)의 어디에선가 환생한다는 것이다.

마귀들은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적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신중한 태도다. 이런 믿음하에 부적은 승려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승려들이 독경을 통한 정신치료법을 실시하였다. 악귀를 쫓고, 병을 치료하며, 극락정토로 인도한다고 믿는 주문을 수시로 암송하는 일이 민간에서 널리 유형하였다. 가장 효험이 있다고 믿은 주문은 역시 옴마니반메훔이었다.

만트라(mantra)는 산스크리트어로 '문자' '언어'의 뜻이다. 한자로는 '진언(眞言)'이라고 음역하며, 밀교에서는 '다라니(陀羅尼, dharani)'라고도 부른다. 만트라는 단순한 언어의 뜻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되지 않고 원어발음 그대로 따라한다. 유대 신비주의 일파인 카발라에서도 성경의 글자에는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해로운 말, 불길한 말, 싸움을 불러오는 말, 불같이 뜨거운 말, 행운을 불러오는 말, 친절한 말 등 힘을 내재하고 있는 말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잘 배합하면 효능은 더 증대된다. 각각의 마귀마다 치명적인 말이 있고 승려들은 그 주문들을 알고 있다.

만트라는 음송되지만, 글이나 문양으로 쓰여져서 관상(觀想)되기도 한다. 숙소나 사원의 지붕을 장식하는 깃발에 그려지기도 하고, 옷이나 부적에 쓰여지기도 한다. 환자는 식이요법 중 만트라가 쓰인 종이를 먹기도 한다.

만트라를 독창(讀唱)하거나 관상하면 복을 쌓고 해탈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물론 사원에 시주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을 병행해야 한다. 부자들은 대개 보석을 시주하고, 가난한 자들은 버터를 시주한다.

라마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정신적 권한과 세속적 권한을 모두 가진다. 국가의 모든 산물, 사형을 포함한 모든 관결권 그리고 신도의 현세적 운명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결정한다.

라마불교는 임종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면 승려는 죽음의 왕국을 여행하는 여러가지 지침이 담겨있는 경을 낭송한다. 화장이나 매장이 끝난 뒤에도 독경과 장례는 계속된다. 그 기간은 49일간 지속되며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지방은 마지막에 태워진다.

육체적 죽음뒤 첫번째 바르도(bardo, 단계)는 깊은 잠의 기간으로 4일간 지속된다. 그뒤 영혼을 비추는 밝은 빛이 나타나고 그제서야 사자(死者)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안다. 만일 그가 해탈을 한 자라면 이것이 마지막 단계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용자 〈칠곡화간〉

'서울에 가면 동국대학을 들려 봐야지.'

이번에도 이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군산을 떠날때부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안가는게 더 좋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왜 동국대에 한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영영 지우지도 못하고 또 실행 하지도 못하는가. 망설임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싶다는 욕심과 어쩌면 없어졌거나 어디 구석창고에 묻혀있어 실망과 화만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주는 망설임이다.

6·25 난리통에 나는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1일에 원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었다. 원주에서 남편은 농고 교사였는데 서울 용산고 교감으로 내정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새로 살림을 편지 25일 만에 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촌 사람들이 피난 갈 궁리도 못하고 용산고 지하 보일라실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공무원이란 신분의 특혜로 끊어지기 직전의 한강 다리를 건너 제주행 배를 타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부산으로 건너와 3년을 살았다. 남편은 천막학교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는 그림 그리는 일 보다는 먹고 사는 고민을 더 많이 했다. 그래도 54년 가을에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첫 전시회를 가져 '당찬여자'란 소리도 들었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전국민과 더불어 예술가들도 배가 고팠다. 그무렵부터 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절에 다니기 시작 했는데 각박한 심정을 무척이나 포근히 어루만져 주는 곳은 절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폭에 담은 '미륵불' 그림수행 스승

'마음만 앞세우지 말라' 되새기며 작품생활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

몇년전 새로 조성한 청동미륵대불 이전의 그 미륵대불이었다. 나는 법주사를 도착하기전에 그 꼬불꼬불한 말티재를 넘으며 "도량의 터도 좋고 유서도 깊지만 법주사는 거대한 불상이 팔상전과 알맞은 거리를 두고 서 있음으로 해서 명찰이라 할 만하다"라는 말을 들었었다.

과연 풍진속을 헤매다가 문득 일주문을 들어 선 한갓 중생의 눈과 마음을 압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위압이 있었다. 그간 여러 절을 다녔지만 법주사만큼 두고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절은 없었다. 결국 나는 법주사를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법주사는 내가 그곳에서 받은 감동대로 화선지에 지어지지는 않았다. 마음 속의 감동과 손끝의 재주에는 고뇌로 이어진 길이 있음을 알게 해 준 작품이 그 작품이었다. 말하자면 내 그림수행의 엄한 스승이었다.

5·16이 나고 몇년 후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세월의 저 편에서 내가 그린 한국화 속리산 법주사 풍경은 국전에서 입선의 기쁨을 내게 안겨 주었고 나는 그 고마운 작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동국대에 기증을 했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조명기박사님이 당시 총장으로 계셨는데 박사님은 그 그림에 넘치는 칭찬을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었다. 그 작품은 당시 도서관 현관에 걸렸었다. 그리고 나는 한번도 그 작품을 보러 가지 못했다. 살기에도 바빴고 굳이 찾아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저 불심 약한 나에게 큰 감동을 준 미륵대불과 그림을 그리되 마음만 앞세우지 말라는 교훈을 준 고마운 작품으로만 기억의 한켠에 밀쳐 두었던 것이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나는 이화여대 경영관에서 한국화 전시회를 가졌다. 이 전시회에는 제주도 풍경을 그린 작품과 도자기들을 내놓았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일흔일곱의 주름진 나이를 기쁘게 해 주었지만 그 전시회의 하루하루는 왜그리 바쁜지 동국대에 갈 틈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가볼까'라는 기대와 '지금 와서 뭘…'이라는 망설임 사이에서 하루하루의 바쁜 일정이 굉계가 되어 준 것 같기도 하지만 군산으로 돌아 오며 나는 생각했다.

'나의 미륵부처님은 내가 가서 보거나 안보거나 내 생활과 화폭에 언제나 계시고 그 분이 계심으로 나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작광 스님)
• 무심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팩스/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상봉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
강릉:(039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풍양사

봉축 '96 新 금강 영험 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1. 소원 성취 부적
바클엔 소원성취 부적을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룩합니다.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을
이 칠성부를 봉안하면 무병, 장수, 부귀영화의 부적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를 추가제작하여
삼재가 든 사람은 삼재가 끝날 때까지 몸에 지니면 삼재 팔란이 물러갑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업번창 • 무병장수
• 운전자무사고 • 합격소원성취
• 삼재소멸 • 심신안정
• 입체재난구제
• 영험의 신비체험

138,000원 남·여한쌍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138,000
할부시 계약금:₩18,000
매월 30,000원×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구입문의: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